

[표 4.2.4] 최근 5년간 교량 복구비용

구 분	2009	2010	2011	2012	2013	평균
복구비 (억 원)	128	70	117	73	64	91

※ (구)소방방재청 복구지원비 중 교량부분 내역 발췌

가장 1차적인 수해복구 시장 규모는 연평균 약 90억 원 정도가 된다. 2차적인 시장으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국가 예산을 바탕으로 한 SOC사업과 민간 수요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으로 구분되나 민간수요는 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고 일정하지 않으므로,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수요가 있는 국가 SOC 사업 예산만을 기준으로 그 시장 규모를 산정하였다.

[표 4.2.5] 각 분야별 SOC 사업 예산

(단위 : 억 원,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4년 1월 2일)

도로	철도	도시 철도	항공 공항	물류 및 기타	수자원	지역 및 도시	산업 단지	주택	계
82,954	61,799	6,233	1,007	12,684	23,830	7,978	8,991	2,682	209,116

제안기술과 같은 교량은 도로, 철도분야 이외에 수자원 및 도시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요소이나, 전 분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발생빈도가 높은 도로 및 철도분야 예산인 14.5조와 낮은 형고를 요구하는 수자원 및 지역 및 도시계획분야의 예산을 기준으로 시장 규모를 파악하였다.

먼저 도로 및 철도분야에 대한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도로의 평균건설단가를 검토하였다.(도로업무편람 2013년, 국토교통부)

[표 4.2.6] 국도 평균 건설 단가

(단위 : 억 원/km)

구 분	고속국도	일반국도	적용
신설4차로	376	212	-
4차로확폭	297	152	-
평균	336.5	182	260

따라서 도로 및 철도예산을 4차선 평균건설단가로 나누면 약 550Km 정도를 건설할 수 있다. 도로 및 철도에는 토공, 교량, 터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설지역마다 그 비율이 상이하므로 정량적으로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. 따라서 그간 국내에 건설된 고속도로 노선별 교량 연장 비율을 근거로 교량공사비를 추정할 수 있다.